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0화 마왕의 유혹을 넘어서다



이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싯다르타를 향하여 쏘아댄 그 많은 불화살이 싯다르타의 몸을 피하여 주위에 떨어졌고 더러는 나무에 박히기도 했다. 싸움은 끝났다. 마왕 파피야스는 더 이상 싯다르타를 이길 수가 없었다. 싯다르타에게는 마왕이 지배할 수 있는 여덟가지의 환경이 없었다. 욕망도 미워하는 혐오감도. 따라서 마왕이 싯다르타의 마음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수많은 불화살도 공포가 없는 사람에겐 한낱 허상일 뿐이었다. 물이 없는 못에서 물고기가 놀 수 없듯이 마왕이 파괴할 수 있는 여덟가지의 환경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싯다르타의 정신세계에서 그 위대한 마왕 파피야스는 물이 없는 물고기 신세였던 것이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약점도 없는 사람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던 말인가? 오랜 세월동안 욕계의 주인으로 지배해 왔던

마라 파피야스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인물을 실제로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이 바로 사카무니(釋迦牟尼)였다. 마왕과 그의 잡귀병사들은 허겁지겁 그곳을 떠나 제6천 마왕의 본거지로 도망쳐 갔다.

이때 마라 파피야스의 타화자재천(Paranimittava-savari deva)엔 메가칼리(Meghakkali)라는 여인이 마왕의 궁전을 지키고 있었다. 메가칼리 마녀는 바로 마라 파피야스의 누이동생이었다. 때마침 성루에 산책하러 나왔던 메가칼리는 오라버니 마왕이 마병들을 이끌고 공포에 떠는 모습으로 허겁지겁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오라버니와 그의 세 조카딸이 모두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나서 봐야지.”

최후의 각오를 한 메가칼리는 여들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 홀연히 싯다르타 앞에 나타났다.

“마 하삼마(Mahasudarsana)대왕의 유일한 혈족(血族)이신 사카(Sakya)족의 큰 무니(Muni)시여, 그대가 이미 성도에 다가선 것을 축하하는 바예요. 나는 욕계(欲界)의 대왕이신 마라 파피야스(Mara Papiyas)의 누이동생인 메가칼리(Meghakkali)구름같이 어두운 여자입니다. 그대가 이미 오라버니의 마왕대군을 물리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찾아 왔어요. 그대는 처음부터 차크라 바르티니 되던지 붓다(Buddha)가 되어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결국은 해탈에 성공하고 붓다가 되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운명적으로 우리 욕계의 법과 충돌을 피할 수 없어서 오라버니 마왕은 붓다를 공격하는 대신 더 많은 중생들에게 욕계의 법을 강요하게 될 것이예요. 결국 사카무니께서 몇 사람 정도는 제도하시는데 성공하시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오욕의 범안에서 고통 받도록 하는 결과를 만드는 셈이지요. 왜냐하면 사카무니는 한 사람 뿐이지만 마왕은 온 욕계에 수많은 동맹군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기 보다는 차라리 동맹을 맺어 이 세계를 같이 거느리면 어때요? 만약 사카무니께서 나의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카무니의 여생을 편하고 즐겁도록 모시겠어요.

자, 보시오. 나는 아직도 젊고 아름다우며 몸에서는 만다라화(Mandarava)의 향기가 풍기고 있어요. 천상의 수많은 신들이 이 몸을 원하고 있지만 저는 이 한 몸을 사카의 큰 무니에게 바쳐 욕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동의 하시겠어요?”

“메가칼리 마녀는 그 해괴한 몸짓을 고쳐잡고 나의 말을 똑똑히 들으라. 이 세간에는 너희들이 지배하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독이 있어 그중 어느 것이라도 너희들의 법에 걸려들면 그것으로 나를 성도(成道)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목적인 줄 난 이미 알고 있다. 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속임수로 나를 어리석은 인간으로 만들어 욕계의 법을 덮어 씌우고자 하였고 또 온갖 추잡한 몸짓으로 나를 능멸하여 성을 내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기어코 나의 성도를 막아보려고 애쓰는 너희들이 그저 가엾고 불쌍할 뿐이다. 나는 그저 욕을 참음으로써 법법(Dhamma)의 메아리 삼고, 뜻을 굳게하여 법의 뿌리 삼고, 계율을 지켜 법의 꽃을 삼고, 바를 깨침으로서 법의 줄기삼아 지혜의 큰 나무에는 위없는 법의 열매를 맺게하고 모든 중생을 그 그늘에 모아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 카무니 싯다르타는 이미 메가칼리의 흥계를 흰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이미 자신의 마음속을 날뎀이 들어 내 보인 메가칼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어둠속을 헤엄쳐 마라 파피야스에게로 돌아갔다. 그래도 영특한 메가칼리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기다리던 파피야스는 너무나 크게 실망하여 통곡한다. 성도를 눈앞에 두고 제 6천의 마왕 마라 파피야스와 처절했던 싸움이 끝내 사카무니 싯다르타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집요하게 담배들던 마왕도 메가칼리도 모두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싯다르타의 성도를 막아설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마라(摩羅)의 존재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부처님의 성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불전에서 전하는 그 유명한 파마전설(波摩傳說)은 여기에서 막을 내린다.

사카무니(釋迦牟尼) 싯다르타가 마라 파피야스를 이겨내니 모친 어둠과 비바람과 안개가 깨끗이 걷히고 다시 평온한 날씨가 되었다. 때 는 바이사카(Vaisakha, 인도력 2월) 보름날 저녁이었다.

이 제 비로소 욕계(欲界)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싯다르타는 성도(成道)를 위한 깊은 선정(禪定)에 잠겨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선정에서 욕망(Ikama)과 악愿(惡願)을 버렸다. 그리고 제 2선(禪)에서 삼매(Samadhi)를 맛보았고, 제 3선에서는 바르게 생각하는 지혜가 열렸으며, 제 4선에서는 인류의 모든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초저녁이 되었다. 돌연 지난 세상의 업보(業報)에 따라 천상(天上)과 지옥(地獄)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자유롭고 올바르게 관찰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이를 천안통(天眼通)이라고 한다.

한밤중이 되었다. 정신이 더욱 맑아져 갔다. 그리고 속명통(宿命通)을 얻게 되었다. 싯다르타는 이제 자신의 지혜의 눈으로 생사의 근원을 추구해 들어 갔다.

“사람들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늙음(老)과 죽음(死)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가? 그것은 태어남(生)이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늙음도 죽음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왜 태어나는가? 그것은 세 가지의 존재양태(三有)인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존재양태(三有)는 다시 네 가지의 집착(四取) 때문이니 그것은 갈망, 애욕(愛慾)이 있

기 때문이며 갈망과 애욕은 느낌이 있기에 있는 것이다. 느낌은 여섯가지의 감각기관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즉 정신적, 육체적 현상(名色) 때문이며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는 의식작용 때문이며 의식작용은 행(行)이 있으므로 해서, 그리고 행은 자아(自我)에 대한 무명(無明, 잘알지 못함)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무명(無明)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 열두가지 인연(十二因緣)을 거쳐 고통이 생겨남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하면 그 무명(無明, Avidya)이 없어져 모든 인간들의 괴로움이 사라지겠는가. 만약 어둠이 없어지면 무명 때문에 생긴 지음(業)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면 의식 작용(識)이 없어지고, 의식이 없어지면 정신적, 육체적인 현상(名色)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감각 작용(六入)이 없어지며, 촉(觸)이 없으면 감수작용(受), 감수작용이 없어지면 갈애(渴愛)가, 갈애가 없어지면 집착(執), 집착이 없어지면 존재(有), 존재가 없어지면 남(生), 남(生)이 없어지면 결국 늙음과 근심과 죽음의 고통도 함께 없어질 것이다.

결국 무명(無明)이 인간에게 실존하는 모든 비극의 뿌리이며 어둠을 없애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임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